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07. 11. 14(水)

팔당 정책 동향

(The trend of Paldang Policy)



팔당수질개선본부

Paldang Water Quality Improvement Headquarters

- 목 차 -

【 팔당 동향 】

- 가축(전염병, 감염축) 매몰지 현장조사 결과..... 3

【 중앙부처 동향 】

- [환경부] 『2007 WATER KOREA』 KINTEX에서 개최..... 5

【 언론보도 사항 】

- [에코저널 등 2] 킨텍스서 상수도 전문박람회 개최.....15
- [에코저널] 부천시, 상수도 동파예방 대책 추진.....17
- [기호일보] 의정부 맑은물사업소 26일부터 업무 개시.....17
- [경기신문] 도내 저수지 오염대책 시급하다.....18
- [경기매일] 경안천이 살아야 용인이 산다([기고-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장 이진영](#))...19
- [데일리안] 고양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20
- [연합뉴스 등 2] 스타벅스 '농촌 상수도 개선사업 동참'.....21
- [경기일보 등 2] 시·군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시급.....22



먹는물검사팀장
권 경 안

가축(전염병, 감염축) 매몰지 현장조사 결과

'07. 11. 14(수)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852-7820
(먹는물검사팀)

○ 2007년 행정감사 기간 중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수질 오염조사 현장방문 결과 보고임.

□ 개 요

- 일 시 : '07. 11. 14(수) 09:00~
- 해당지역 : 양주시(은현면 하패리 1072 등 2곳)
- 방문인원 : 5인(도시환경위원회 의원)
 - ※ 도, 시·군 : 도축산과장, 2청 축수산산립과장, 양주시 농축산과장, 북부지원장, 수질화학팀장, 먹는물검사팀장 등

□ 주요내용

- 가축 매몰 현황 및 오염실태 보고
-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수질오염실태 조사
- 토양, 수질(지하수) 시료채취(보건환경연구원)
 - ※ 시료채취 : 토양 8건, 지하수 2건

□ 향후 대책 및 의견

- 매립지주변지하수를 1공만 검사하면 객관성이 결여 되므로 2공 이상 조사 하도록 검토(이항원의원)
 - ⇒ 매립지 지하수외에 주변의 자가수도(지하수, 생활용수)를 매립지 중앙으로 부터 1Km 범위를 정하여 조사 할 예정임을 보고
- 매립지주변지하수를 매립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이 필요(윤완채의원)
 - ⇒ 주변에 감시정을 설치하여 갈수기, 강수기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보고할 예정임

검 토 자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고 환 옥



【중앙부처 동향】

| | | | | | |
|--|-------------|----------------|----------------------------------|-------|----|
|  환경부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자료배포일 | 매수 |
| | | | | | |
| | 담당 부서 |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 최용철 과장 / 박상진 사무관 02-2110-6879 | | |

『2007 WATER KOREA』 KINTEX에서 개최

- ◇ 국내 최대 『물의 축제』인 『2007 WATER KOREA』 행사가 11월 19~22일까지(4일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KINTEX)에서 열려
- ◇ 현재와 미래의 상·하수도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자재 전시회에 8개국 180여개 기업에서 참여(720부스)
 - 기자재 전시 외에도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 마련

- 전국 상·하수도인의 축제인 2007 WATER KOREA 행사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KINTEX에서 나흘간 개최된다.
 -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에서 후원하는 2007 WATER KOREA 행사는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 전문 종합박람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WATER KOREA는 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상하수도 관련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고,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포럼 등을 통해 관련 학·연구계의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를 보급·홍보하며,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및 물사진 전시회 등을 통해 상하수도 종사자들간의 화합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교육의 장을 제공해 오고 있다.

- 올해로 6회째 개최되는 2007 WATER KOREA 행사는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 이어 매년 지방순회로 개최되어 왔으며, 수도권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며 지금까지의 전시회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개최될 전망이다.
- 2007 WATER KOREA 행사기간 중에 개최되는 주요행사로 상하수도기자재 전시회,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물사진 전시회, 상하수도 시설견학, 일본하수도협회교류회,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 그리고 한국상하수도협회 총회 등 상하수도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 특히, 상하수도 기자재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미국, 네덜란드 등 8개국에서 180여개 업체, 720부스(해외 9개업체, 36부스)의 상하수도 관련업체와 서울특별시 등 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등 물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국내외 상하수도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줄 예정이다.
 -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의 공동추계학술발표회가 개최되고, 특·광역시 연구기관검사협의회와 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 연구논문,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현장업무 개선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환경부의 정책방향 등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400여편의 정책과 논문, 업무개선 사례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 특히, 금년에는 식품 및 위생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NSF (미국위생재단)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공동으로 자국의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과 적합성 평가체계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에서는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화합을 위해 상하수도시설 현장종사자들로 구성된 7개 특·광역시 및 9개 도 등이 참여하여 상수도과 하수도 부문으로 나누어 그동안 연마한 솜씨로 가정용 급수관과 하수관 연결공사에 대한 기능을 겨루게 된다.
- 그밖에 일반시민들과 참관객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진 물사진 전시회를 통해 약 60점의 사진을 전시할 예정이며,
 - 일본하수도협회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상하수도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단결과 화합의 장을 이루는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 이번 2007 WATER KOREA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과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붙임 : 1. 2007 WATER KOREA 행사계획
 2. 2007 WATER KOREA 업무개선 우수사례 요약(4편)

『2007 WATER KOREA』 행사계획

I. 행사개요

-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 종합행사로서 전시회, 세미나, 기능경진 대회, 현장견학 등 다양한 행사 마련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연구계, 기업체의 모든 상하수도인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
 - 전국 상하수도인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

- 행사명 : 2007 WATER KOREA
- 행사기간 : 2007. 11. 19(월) ~ 11. 22(목) / 4일간
- 장소 : KINTEX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최 : 한국상하수도협회
- 후원 :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 참가인원 : 32,000여명

II. 행사계획

| 행사명 | 일시 | 장소 | 행사내용 |
|-----------------|----------------------------|---------------------------------------|---|
| 개막식 | 11.19(월) 10:30 | 전시장(2홀) | - 테이프커팅 전시장 투어 |
| 총회 | 11.19(월) 14:00 | 204호 회의실 | - 축사 - '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
| 특·광역시 본부장 회의 | 11.19(월) 15:00 | 207호 회의실 | - 주제발표 및 토론 |
| 전시회 |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 11.19(월)~11.22(목) 10:00~17:00(4일간) | 제1홀, 제2홀 전시장 |
| | 물사진 전시회 | 11.19(월)~11.22(목) (4일간) | 전시장 로비 |
| 세미나 | 11.19(월)~11.22(목) (4일간) | 2층 회의실 | - 공동 추계 학술발표회 - 상수도연구발표회 - 먹는물수질개선발표회 |
| 협회-NSF 공동세미나 | 11.20(화) 14:00 | 205호 회의실 | - 세미나 발표 (수도용자재 위생안전 기준 등) |
|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 11.20(화)~11.21(수) (2일간) | 제1홀, 제2홀 전시장 | - 가정용 급수관 연결공사, 가정 용 하수도관 연결공사 |
| 상하수도 시설견학 | 11.21(수) 14:00 | 경기도내 정수장 및 하수 처리장 | - 참관객, 일반시민, 학생 등 상하 수도 시설견학 |
|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 | 11.19(월) 19:00 | 3층 그랜드볼룸 | - 축사, 유공자 포상 - 공연 및 만찬 |
| 일본하수도협회 교류회 | 11.21(수) | 209호 회의실 | - 학술발표회, 간담회 등 |
| 폐막식 | 11.22(목) 16:00 | 204호 회의실 | - 시상, 대회기 이양 등 |

『2005 WATER KOREA』 행사 세부계획

1 한국상하수도협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7. 11. 19(월) 14:00
- 장 소 : KINTEX 204호 회의실
- 참 석 : 300명
 - 초청인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원 등
- 행사내용
 - 2007년도 결산 승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정관 개정안 승인 등
- 진행순서
 - 개회선언 및 개회사(협회장 또는 상근부회장)
 - 부의안건 처리
 - 폐 회

2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 일 시 : 2007. 11. 19(월)~11. 22(목) / 4일간
 - 장 소 : KINTEX 1·2홀 전시장(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관 : 32,000(공무원, 학계, 업계, 일반시민)
 - 규 모 : 8개국 180여개업체 720여개 부스
 - 국 내 : 165개 업체 690여 부스
 - 국 외 : 7개국 9개 업체 36개 부스(일본, 호주,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 전시내용
 - 지방자치단체 : 공동홍보관 운영
 - 기업체 : 상하수도 기자재(유량계 등 계측장비, 소독설비, 수처리기기 등) 전시
- ※ 수처리기기 36개, 배관류 64개, 계량/계측/검사기기류 36개, 밸브펌프류 20개, 설계/시공/유지관리 16개, 사업자 홍보관(특·광역시, 수공, 공단) 9개, 기타(수처리선진화사업단, NSF, 환경보전협회) 14개

3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 일 시 : 2007. 11. 19(월)~11. 22(목) / 4일간
- 장 소 : KINTEX 2층 회의실
- 목 적 : 기술, 정보, 경험 등을 교류함으로써 상하수도 분야의 발전을 도모
- 진 행 : 학회 및 기관별 주관
- 일정계획

| 일 자 | 시 간 | 주 관 | 주 제 |
|----------|----------------------------|-------------------------------|-----------------------------------|
| 11.19(월) | 13:00~18:00 (208호) | 먹는물수질 검사기관 협의회 | 먹는물 수질개선발표회 |
| 11.20(화) | 09:00~18:00 (208호) | 상수도연구 검사기관 협의회 | 상수도 연구발표회 |
| | 09:00~16:30 (206호,207호) |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 상·하수도 관련 업무개선사례발표회 |
| | 14:00~16:00 (205호) | 한국상하수도협회 NSF | 수도용 자재의 적합성 평가체계 NSF 인증프로그램 소개 |
| 11.21(수) | 09:00~18:00 | 대한상하수도학회 | 2007년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및 포럼 |
| 11.22(목) | 09:00~16:00 | 한국물환경학회 | |

4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 일 시 : 2007. 11. 20(화) ~ 11. 21(수) / 2일간
- 장 소 : KINTEX 전시장 내
- 목 적 : 기능경진대회를 통하여 기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참가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
- 참 가 : 16개팀 (16개 특·광역시, 도)
 - 상수도 : 15개팀 45명
 - 하수도 : 13개팀 39명
- 대회내용
 - 상수도 : 가정용 급수관 연결공사
 - 하수도 : 가정용 하수도관 연결공사

5 물사진 전시회

일 시 : 2007. 11. 19(월) ~ 11. 22(목) / 4일간

장 소 : KINTEX 전시장 로비

주 체 : 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전시내용

- 내용 : 3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사진 전시회로 WATER KOREA 행사
기간내 전시장 복도에 각 기관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전시
- 대상 : 일반인 및 전시참관객
- 참여 기관별 전시주제
 - 한국상하수도협회 : 우리생활속의 물을 주제로한 사진 전시
 - 한국수자원공사 : 자연을 주제로 한 물 사진 전시
 - 환경관리공단 : 인간 및 자연에 의한 물의 오염을 소재로 한 물
사진 전시

6 상하수도 시설견학

일 시 : 2007. 11. 21(수), 14:00

참석대상 : 참관객, 일반시민, 학생 등

장 소

- 경기도내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등

7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

일 시 : 2007. 11. 19(월) 18:00

장 소 : KINTEX 3층 그랜드볼룸

주 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참석자 : 약 150명(협회 초청인사 및 전시참가 업체 대표 등)

행사내용

- 축하 및 유공자 포상
- 만찬 및 공연

8 일본하수도협회 교류회

- 일 시 : 2007. 11. 20(화) 15:30
- 장 소 : KINTEX 209호 회의실
- 대 상 : 한국상하수도협회, 일본하수도협회 관계자 등
- 내 용 : 학술발표회, 간담회 및 만찬 등

9 폐막식

- 일 시 : 2007. 11. 22(목) 16:00
- 장 소 : KINTEX 204호 회의실
- 대 상 : 협회회원 및 행사참가자, 시상자 등 약 200명
- 내 용 : 종합시상 및 기업체 시상, 행사영상 상영, 폐회선언 등

2007 WATER KOREA 업무개선 우수사례

| 지자체 | 소속 | 이름 | 내용 |
|---------|---------|-----|--|
| 대전광역시 | 상수도사업본부 | 곽대식 | <p style="text-align: center;">회수슬러지 인발방법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과지 역세척 퇴수를 회수하여 슬러지를 Cake화 하기 위하여 회수조 침전지에서 농축조로 이송시키는 과정에서 슬러지 인발방법을 개선하여 회수조 운영의 효율을 향상 ○ 단방향 수집구조로 설치된 배관을 3방향 수집구 형태 구조개량하여 인발면적(슬러지 붕괴 범위)을 넓혀, 슬러지 잔량 최소화 |
| 한국수자원공사 | 팔당권관리단 | 이영기 | <p style="text-align: center;">정수장 침전슬러지 최적 배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 덕소정수장 5단계 침전지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침전슬러지 배출을 위한 인발배관 형식 개선 및 인발방식 단계별 조정을 통한 최적 배출수량 결정 ○ 호퍼내 슬러지 인발배관을 총 6가지 형태로 시험 설치·운영, 최적의 인발배관 형식 선정 ⇒ “Downward 곡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덮개, 배관길이, 입구 배플 조합 4종, 상·하곡관 2종 등 총 6종 - 침전슬러지 효율적 배출 및 재부상 방지 등을 통한 침전수질 개선 ○ 침전슬러지 드레인 밸브 개도 및 Delay Time 단계별 조정을 통한 최적 배출방안 검토 ⇒ “40% Open/Delay(2초)/Close”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소 및 외부정수장 침전슬러지 배출방식 조정 시행 - 배출수량 조정에 따른 침전수 절감 : 1,280m³/d · (기존) 3,030m³/d → (변경) 1,750m³/d |

| 지자체 | 소속 | 이름 | 내용 |
|-----------|-------------|-----|--|
| 서울 특별시 | 중랑 물재생센터 | 이영성 | <p>하수슬러지 탈수약품 및 케익발생량 저감시스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슬러지 케익함수율이 겨울철은 높고 여름철은 낮은점을 착안하여 탈수약품 용해도와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실험한 결과 35℃에서 약품점도와 응집효율이 가장높게 나타남에 따라 ○ 탈수약품 용해수를 소화오니폐열로 1차 가온(25℃)하고 가온보일러 폐열로 2차 가온(35℃)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탈수약품사용량이 10%이상 절감되고 케익발생량이 9%이상 절감되어 연간 11,84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
| 대구 광역시 | 환경 시설공단 | 우수돌 | <p>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방법 변경을 통한 하수처리장의 수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방법은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를 전처리 후 음식물쓰레기 여액을 침사지로 이송하여 하수와 병합처리하였으나 유입수질의 과도한 상승, MLSS의 과도한 상승으로 잉여슬러지 발생량 증가, 다량의 스크 발생으로 하수처리에 문제점을 유발함. ○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여액의 병합처리방법을 소화조 투입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유입수질 및 MLSS의 안정화, 잉여슬러지 및 스크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얻어 방류수질 개선, 슬러지 저감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기여함. |

에코저널

2007. 11. 14(수)

킨텍스서 상하수도 전문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물의축제'인 '2007 WATER KOREA'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에서 후원한다.

'WATER KOREA'는 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상하수도 관련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한다.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포럼 등을 통해 관련 학·연구계의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를 보급한다.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및 물사진 전시회 등을 통해 상하수도 종사자들간의 화합을 제공하기도 한다.

올해로 6회째인 행사는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 이어 매년 지방순회로 개최돼 왔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열린다.

행사기간 중에 열리는 주요행사로 상하수도기자재 전시회,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물사진 전시회, 상하수도 시설견학, 일본하수도협회교류회,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 한국상하수도협회 총회 등 상하수도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상하수도 기자재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미국, 네덜란드 등 8개국에서 180여개 업체, 720개 부스(해외 9개 업체, 36부스)의 상하수도 관련업체와 서울특별시 등 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등 물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의 공동추계학술발표회가 개최된다. 특·광역시 연구기관경사협의회와 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의 연구논문,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현장업무 개선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환경부의 정책방향 등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400여편의 정책과 논문, 업무개선 사례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년에는 식품 및 위생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NSF(미국위생재단)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공동으로 자국의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과 적합성 평가체계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에서는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화합을 위해 상하수도시설 현장종사자들로 구성된 7개 특·광역시 및 9개 도 등이 참여해 상수도과 하수도 부문으로 나눠 그동안 연마한 솜씨로 가정용 급수관과 하수관 연결공사에 대한 기능을 겨루게 된다.

박희자 기자 phj@ecojournal.co.kr

데 일 리 안

2007. 11. 14(수)

'2007 WATER KOREA' KINTEX에서 개최

현재와 미래의 상.하수도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자재 전시회에 8개국 180여개 기업에서 참여(720부스)

전국 상.하수도인의 축제인 2007 WATER KOREA 행사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KINTEX에서 나흘간 개최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에서 후원하는 2007 WATER KOREA 행사는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 전문 종합 박람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WATER KOREA는 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상하수도 관련 기업들 에게는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고,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포럼 등을 통해 관련 학.연구계의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를 보급.홍보하며,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및 물사진 전시회 등을 통해 상하수도 종사자들간의 화합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교육의 장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로 6회째 개최되는 2007 WATER KOREA 행사는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 이어 매년 지방순회로 개최되어 왔으며, 수도권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며 지금까지의 전시회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개최될 전망이다.

2007 WATER KOREA 행사기간 중에 개최되는 주요행사로 상하수도기자재 전시회,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물사진 전시회, 상하수도 시설견학, 일본하수도협회교류회,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 그리고 한국상하수도협회 총회 등 상하수도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상하수도 기자재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미국, 네덜란드 등 8개국에서 180여개 업체, 720부스(해외 9개업체, 36부스)의 상하수도 관련업체와 서울특별시 등 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등 물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국내외 상하수도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줄 예정이다.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의 공동추계학술발표회가 개최되고, 특.광역시 연구기관검사협의회와 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의 연구논문,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현장업무 개선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환경부의 정책방향 등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400여편의 정책과 논문, 업무개선 사례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식품 및 위생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NSF(미국위생재단)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공동으로 자국의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과 적합성 평가체계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에서는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화합을 위해 상하수도시설 현장종사자들로 구성된 7개 특.광역시 및 9개 도 등이 참여하여 상수도 하수도 부문으로 나누어 그동안 연마한 솜씨로 가정용 급수관과 하수관 연결공사에 대한 기능을 겨루게 된다.

그밖에 일반시민들과 참관객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가지 주제를 가진 물사진 전시회를 통해 약 60점의 사진을 전시할 예정이며, 일본하수도협회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상하수도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단결과 화합의 장을 이루는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2007 WATER KOREA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와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저널

2007. 11. 14(수)

부천시, 상수도 동파예방 대책 추진

부천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상수도 동파예방 및 동파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동절기 상수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주야로 운영한다. 또 상수도 동파민원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 근무조 편성과 비상복구를 위한 5개 기동반 30명을 편성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 동파사고 요인이 가장 많은 수도계량기와 옥내 급수시설에 대한 보온 및 대처방법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동파예방 홍보물 4만2250매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홍보문구를 삽입해 각 수용가에 직접 송달하며, 현수막 및 유선방송 등 대중매체를 이용, 동파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동파 예방 요령으로는 ▲계량기 보호통 내로 찬공기 스며들지 않도록 뚜껑부분의 틈새를 막아 밀봉할 것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할 것 ▲계량기 보호통내 보온재(스티로폼) 파손여부 확인 ▲인조승, 형광, 폐담요 등으로 계량기함 내부보온 강화 ▲계량기 보호통내 누수여부 확인 등이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을 때는 헤어드라이어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수도계량기 유리 파열을 막을 수 있다.

기호일보

2007. 11. 14(수)

의정부 맑은물사업소 26일부터 업무 개시

조광래 기자 klcho@kihoilbo.co.kr

【의정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가 가능3동 어룡3길 소재 가능정수장에 수도시설 종합관리동을 신축해 오는 26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2005년 12월 30일 직제가 신설돼 그 다음해인 2006년 2월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나 협소한 사무실 공간과 수도시설물의 분산 관리로 인해 그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건립된 수도시설 종합관리동은 상하수도시설의 상시 원격관리가 가능한 수운영센터로 대지 1만8천992㎡, 건축면적 1천586㎡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200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 지난해 1월 공사를 착공, 준공을 앞두고 있다.

종합관리동의 지상 1층에는 요금민원실, 관리과 사무실, 수도홍보실이 설치되고, 2층은 수도과 사무실, 물홍보관, 수운영센터, 통신실 및 전산실이 설치된다. 또한 3층은 맑은물사업소장실, 하수시설과 사무실, 하수도중앙관리실이 설치되며, 지하 1·2층은 실험실, 기계실, 전기실, 자재창고 등 각종 상하수도시설 등이 완비됐다.

경 기 신 문

2007. 11. 14(수)

[사설] 도내 저수지 오염대책 시급하다

지난 11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국민의식 변화에 따르면 10년 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환경오염 문제가 꼽히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는 10년 후의 최대 걱정거리일 뿐 아니라 지금 당장의 심각한 당면문제이기도 하다.

상수원 수질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또 수도권 도심의 저수지들 오염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질식할 정도로 오염돼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농업용수로 이용돼 온 수도권 저수지 물은 마시는 물에 비해 수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방치되다시피 한 데다, 주변 개발로 오염원이 크게 늘었으나 이를 감당할 만한 수질보전대책이 제대로 뒤따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질오염과 악취 등으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수원 원천저수지의 경우 도가 지난 6월 측정한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L당 14.3mg으로 호소 수질기준 가운데 최악인 6등급을 한참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남은 음식물이며 빈 술병, 비닐봉투, 빈 캔 등 갖가지 오물들이 곳곳에 나뒹굴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악취가 코를 찌른다. 저수지 바닥은 암죽 같은 잿빛의 퇴적물이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

비단 원천저수지만이 아니다. 지난 7월 도가 조사한 용인 신갈저수지의 수질은 1997년 최악의 수질오염으로 담수화를 포기한 시화호 오염농도의 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이면 물 썩는 냄새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 정도라고 한다.

수원 신대저수지와 서호, 화성시 화옹호와 남양호, 용인의 낙생저수지, 시흥 물왕저수지 등 경기도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이와 비슷한 형편이어서 물이 썩어가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저수지 물이 썩는 주된 원인은 대부분 주택지와 공장, 유원지 등에서 쏟아내는 오·폐수가 그대로 저수지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지자체나 저수지 관리를 맡고 있는 농촌진흥공사, 환경부 등은 대책을 세우는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권한을 한 군데로 모으는 일이 시급한 시점이다.

경 기 매 일

2007. 11. 14(수)

경안천이 살아야 용인이 산다

오염 대비 적극적 해결방안 필요



이건영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 경안천 만들기 운동 시작 1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주변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와 모현면에 소재한 능원교회와 단체 간 환경협약을 맺었고 용인시 재향군인회등과도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2천3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우리 손으로 지켜 갈 것을 스스로가 참여를 유도하고 자리매김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올해는 경안천살리기운동 원년으로 정하고 3대 목표인 첫째 1마을 1하천 1회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 둘째 주민의 적극적인 하천정화활동 참여, 셋째 경안천 수계 불법 낚시 및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심없이 노력했다. 또한 팔당수계중 경안천은 오염 부하량이 가장 높은 곳으로 경안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수계 개념을 정립해 불법행위근절과 현장위주의 계도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용인시 동부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는 수질관리를 과거에는 농도규제와 입지규제를 적용했으나 오총제는 농도규제나 입지규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만든 제도로 하천에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에 달성할 양 이하로 관리해 계획적인 지역개발과 수질오염을 동시에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나 시행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시급한 지역개발사업 또한 오총제 이후라는 단서로 반려, 허가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임의제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나름대로의 지역개발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이행평가를 실시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들어 팔당호주변 용인, 가평,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등이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돼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용인시는 환경부가 제시한 BOD 4.1ppm과 시가 제시한 5.47ppm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환경부와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협상의 틀에서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무조건 안된다는 정서를 가지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해 오늘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문제는 용인시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인 하수처리구역의 부족과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그리고 난립한 개별오폐수 시설에 대한 정비문제와 비점오염원의 저감대책과 설치시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안천의 미래는 민·관 모두가 뚜렷한 맑은 물 만들기예 대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때 경안천이 새롭게 탄생하고 경안천이 오염의 주범이 아닌 상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또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에 그만큼 경안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염총량제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경안천살리기운동 2년차는 지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결할 것이다. 우리 용인시민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한다.

데 일 리 안

2007. 11. 14(수)

고양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1983년 12월 26일 최초 지정되었던 고양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12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지정 해제 되었다.

고양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면적은 총 4.33km²로 보호구역의 전 지역이 해당되며 고양시 관할지역은 신도동과 관산동, 고양동 일원으로서 1.62km²이다. 양주시 관할은 삼하리등 2.71km²로서 이번에 모두 해제되었다.

이번 고양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각종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된 규제였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향후 이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만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따라 각종 허가 및 신고행위가 각 행위관련법에 의하여 처리되며 환경부령의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적용되었던 규제 사항은 모두 해제 되었다.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하천관리 및 수질관리는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고양시는 깨끗한 곡릉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드림 맑은하천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맑고 푸른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손색없는 도시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연 합 뉴 스

2007. 11. 14(수)

스타벅스 '농촌 상수도 개선사업 동참'

여주 강천면서 마을상수도 완공식

(여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커피의 98%가 물입니다. 생명의 물을 보호하고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시름하는 국내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농촌 상수도 개선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 3월 (사)수돗물시민회의와 '농어촌 간이 상수도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1리에서 상수도 개선사업을 벌여왔다.

강천면 주민의 3분의 1 정도가 마을 및 간이 급수시설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천1리의 경우 올 상반기 간이 급수시설이 수질검사에서 식수 저장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스타벅스와 수돗물시민회의는 첫 사업대상지로 강천1리를 선정하고 스테인리스 저수조 교체 및 수질검사 비용 등으로 2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을 공동추진한 스타벅스와 수돗물시민회의, 여주군 상수도사업소, 여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강천1리에서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공사 완공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민들에게 마을 상수도 이용에 필요한 지침서를 나눠주고 수돗물을 마셔보는 시간을 가졌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기업이 함께 농어촌 주민의 식수 안전을 위해 노력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 수돗물시민회의와 함께 국내 농어촌의 맑은 물 되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서울.경기지역 50여개 매장에서 경기미 떡을 판매하고 있다.

경 기 일 보

2007. 11. 14(수)

스타벅스의 향긋한 봉사

여주 강천1리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지원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장성규)가 시민단체, 마을주민과 함께 산간마을의 상수도시설 공급에 나서 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타벅스는 14일 여주군 강천면 강천1리에서 장재연 (사)수돗물시민회의장, 김정권 여주환경운동연합 의장, 강천1리 신동광 이장과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완공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은 스타벅스가 지난 3월 (사)수돗물시민회의와 맺은 '농어촌 간이 상수도 개선사업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한 오지마을 상수도 보급사업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다.

인구 3천600여명의 강천면은 정부로부터 상수도 보급을 받지 못하면서 주민 대부분이 마을 공동 우물과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해 왔다.

특히 최근 마을 공동 물저장탱크가 너무 노후돼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식수 이용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스타벅스와 (사)수돗물시민회의, 여주환경운동연합, 여주상수도 사업소, 주민들과 손을 잡고 예산 2천여만원을 투입, 물탱크 교체 등 상수도 개선사업을 추진해 마을의 고민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강천1리 상수도 개선사업은 농어촌주민의 식수안전을 위해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기업이 함께 노력해 결실을 맺은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수돗물시민회의와 함께 농어촌의 맑은 물 되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 기 일 보

2007. 11. 14(수)

시·군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시급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경기도내에 시공한지 16년 이상이 경과해 교체가 필요한 노후 상수도관이 5천513km에 달하며 교체 비용도 1조6천53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도비 지원에만 의존해 교체사업을 추진,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3일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응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매설한지 16년이 지나 교체가 필요한 노후 상수도관이 부천 847km, 수원 601km, 의정부 415km 등 모두 5천513km에 달한다.

이에 따른 교체비용도 부천 2천541억원, 수원 1천803억원, 의정부 1천245억원 등 1조6천539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도내 전역에 교체해야 할 노후 상수도관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일선 시·군의 개선의지가 부족해 교체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선 시·군들이 막대한 교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도는 시·군의 전체 교체사업에 쓰여진 예산 206억원 가운데 68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도 총 교체사업비 250억원 중 75억원을 시·군에 지원했다.

특히 이처럼 교체사업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노후관을 통해 빠져나간 수돗물로 인한 손실액이 731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도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팔당물을 깨끗이 해도 막상 우리가 마시는 물의 상수도관이 더럽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 합 뉴 스

2007. 11. 14(수)

경기도내 노후 상수도관 길이 경부선 12배

교체비용 1조6천억원에 달해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경기도내 노후 상수도관 길이가 경부선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매설한 지 16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이 부천 847km, 수원 601km, 의정부 415km 등 모두 5천513km로 경부선(444.5km)의 12배에 달한다.

또 이들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부천 2천541억원, 수원 1천803억원, 의정부 1천245억원 등 무려 1조6천5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체사업을 제대로 얹아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누수로 인한 비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74억원, 올해 63억원을 일선 시군에 지원,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나 일선 시군이 투자한 사업비는 지난해 175억원, 올해 143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노후관을 통해 빠져나간 수돗물 손실액이 지난해만도 731억원에 이르는 등 손실규모가 매년 늘고 있다.

임응순 도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해 팔당물을 깨끗이 해도 상수도관이 더럽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